+입법정보

계간 세종의정

| 여름호 |

2025년
통권 제4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민곁에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의회가 언제나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제98회 정례회 개회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각 정당 후보들의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한 반가움과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회기에서도 강조했듯,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 역시 이번 기회를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대한 국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는 약 1,260억원, 교육청은 약 376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관세전쟁과 안보 불안,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정국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추경 예산안, 결산안, 조례안 심의 등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현안업무로 바쁜 가운데 회기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시민의 삶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해 주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흘리는 땀방울이 세종시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끝까지 책임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 채 성

계간 세종의정

SEJONG
CITY COUNCIL

2025 + vol.44 |여름호|

표지이야기

계간 <세종의정> 통권 제44호 여름호 표지는 푸른 여름 하늘을 가로질러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가 장식했다. 따뜻함과 무더움의 변곡점을 지난 이번 여행의 여정 속에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이제 절정으로 접어들었다. 2025년 여름, 젊은 파일럿의 비행이 숙련된 기장의 여행으로 탈환한다. 최종 종착지는 '시민'이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계간 <세종의정> E-Book을 보실수 있습니다.

발 행 일 2025년 7월 18일

발 행 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 행 인 임채성 의장

제작부서 홍보기획팀

목 차

04 개회사

08 의정포커스

12 2025 행정사무감사, 열정 한 줄

20 결의안

23 주요안건 처리현황

30 의회인터뷰

38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소식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8 5분 자유발언

56 시정질문

57 긴급현안질문

58 공부하는 의회

62 세종스케치

66 세종에서 놀자, 쉬자

68 입법정보

Ⅰ. 생활법령
Ⅱ. 주요입법동향
Ⅲ. 법령해석사례
Ⅳ. 최근시행법령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82 의회홍보채널 안내

FOCUS 01

제97회 임시회 폐회… 34건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월 5일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의 시작과 함께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며, “새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지난달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 상판이 떨어져 사상자가 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 했다”며, “우리 시에도 공사장이 많은 만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히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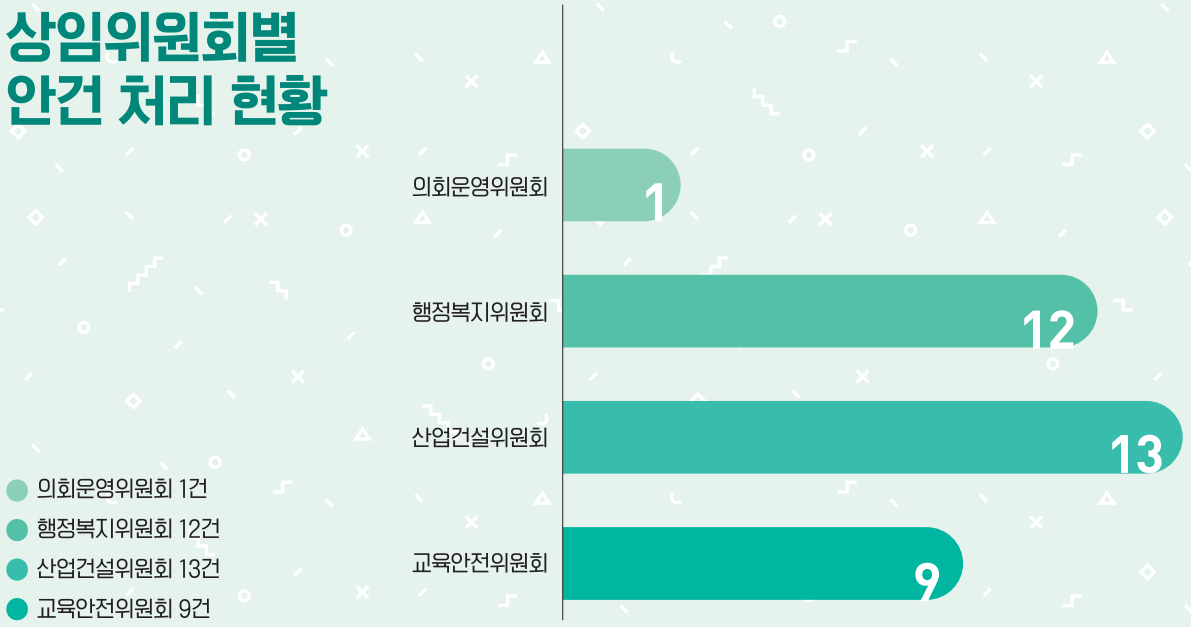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세종평생교육·정책

제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현황



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가결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3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34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안신일·홍나영·김현옥·상병헌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등 총 3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은 부결됐다.

FOCUS 02

제98회 정례회, 행감 등 35일간 회기 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했다.

임채성 의장은 20일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영현·김충식·이순열·김현미·김동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

제98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현황

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김현옥·안신일·홍나영·유인호·윤지성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순열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승인 추진 절차에 대해 질의한 후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3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등 11건이다.

또한 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0건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도 의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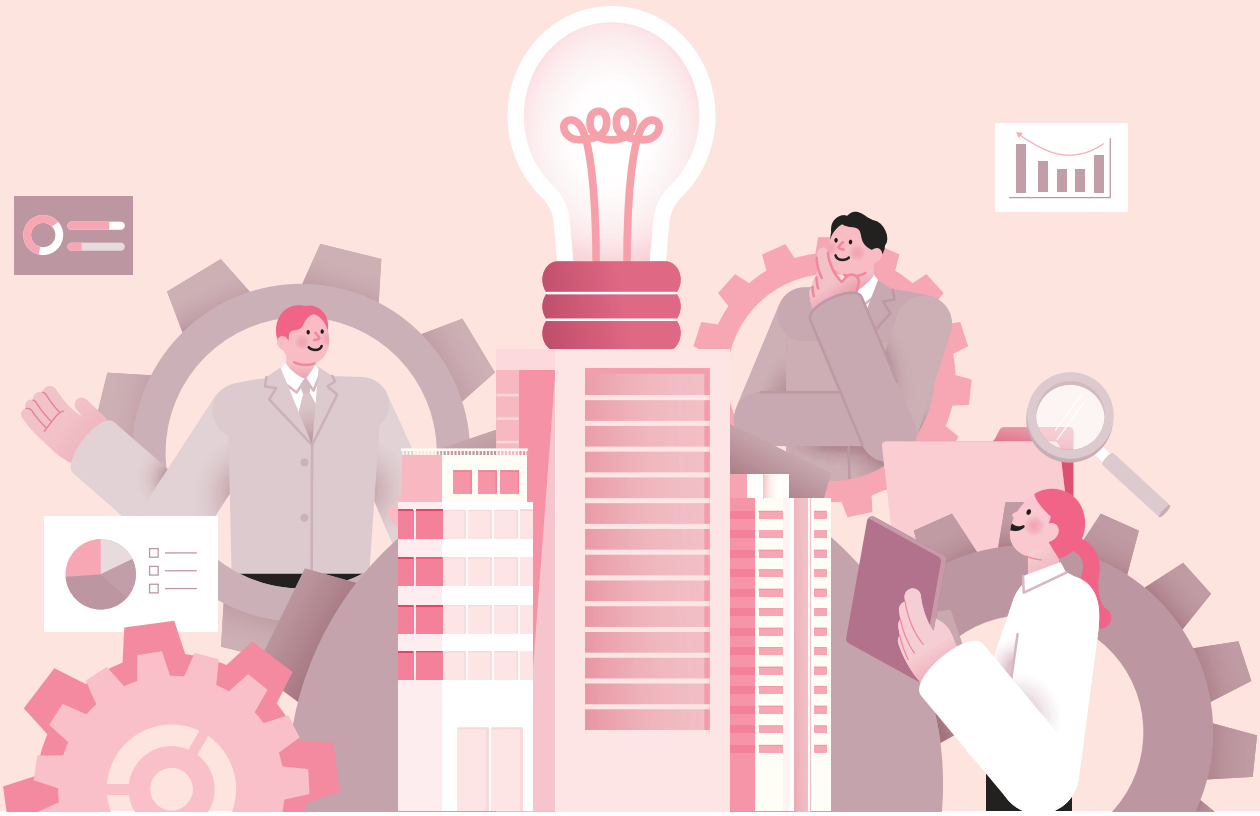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는 등 총 9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35일간의 제98회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8월 25일부터 제99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2025 행정사무감사, 열정 한 줄

2025년 5월 29일, 제98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해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20인의 의원들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열정으로 한층 성숙한 질의를 거듭했다. 시민을 향한 책임감과 사명으로 흐트러짐 없이 감사에 임한 세종시의회, 시정 진단으로 민의의 전당을 강고히 한 그 현장을 주요 발언으로 되돌아본다.



쓰담걷기,
실질적·체계적 계획 수립과 실행 이뤄져야

김 광 운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 6월 10일 세종시 환경녹지국

김광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쓰담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읍·면·동에서는 이를 단순히 마을 환경정비 활동의 일환으로만 추진하고 있다"며, "쓰담걷기는 단순한 청소 활동을 넘어 시민 참여를 통한 환경 보호와 건강 증진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 있는 정책인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정책과
기초부터 탄탄한 행정 기반 마련 강조

김 동 빈 의원 (부강·금남면, 대평동, 국민의힘) | 6월 9일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김동빈 의원은 교육청의 제반 사업에 대해 지역과 상생을 통해 성장하는 기획과 실천이 함께 해야 교육적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동 지역 아이들이 읍면 지역과 소통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경험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사업의 근거 조례, 위원 구성, 계획 및 안전 관리, 사업의 기본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며 튼튼한 기초에서 시작하는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조정 주문

김 영 현 의원 (반곡동, 더불어민주당) | 6월 5일 세종시 자치행정국

김영현 의원은 장미원과 마을정원 사업을 언급하며 "5억 원이 투입된 중앙공원 장미원이 방치된 상황에서, 동별로 수천만 원을 들여 꽃밭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편일률적 마을정원 사업에 대하여 비판하며 "주민이 요청한 생활 민원은 뒷전인 채 형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는 현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 역점 사업,
예산확보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김 재 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 6월 10일 세종시 환경녹지국

김재형 의원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공자 배우자 수당,
적극적 안내와 홍보로 시민의 권리 보장해야

김 충 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 6월 10일 세종시 보건복지국

김충식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제도가 신청주의에 기반해 있어 사망 당시 안내나 홍보가 부실하면 권리 행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지속 증가를 들어 "현재 공영 장례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품격과 예우를 갖춘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설 민원 대책 마련 시급

김 학 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 | 6월 10일 도로관리사업소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 주문

김 현 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 6월 10일 세종시 보건복지국

김현미 의원은 복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정책 내실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반납 사례가 빈번하고, 중앙부처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복지 분야 지적이 두드러졌다"며, "정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 감독을 위한 중간평가제 도입과 관행적 사업 시행을 제어할 수 있는 일몰제 적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동크린넷 이용 편의 증진과 악취 저감 대책 마련 촉구

김 현 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 6월 10일 세종시 환경녹지국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하여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라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성2교 조기 개통 노력 촉구

김 효 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 6월 9일 세종시 교통국

김효숙 의원은 "올해 인수 예정이었던 나성2교가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시민은 물론 타시도 방문객들에게도 공연 시청 이후 귀가길의 편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세종예술의전당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해 나릿재마을 2단지 어린이들의 보행 환경이 다소 위험하다.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나성2교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복적인 시험 출제 오류 지적과 교육 혜택의 고른 분배 강조

박 란 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 6월 9일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관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험 문제 출제 오류와 재시험 사례를 지적하며, 오류 없는 시험문제 출제를 통한 공정한 평가 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출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구축, 학교 자체 평가 체계에 대한 외부 자문 지원, 책임질 수 있는 평가 체제 확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예산 및 지원 등의 혜택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학교가 특별해질 수 있도록 하는 혜택 분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각지대 놓인 직원 복지, 개선 필요

상 병 헌 의원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 6월 11일 세종시 운영지원과

상병헌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은 결원율 등 여러 요소와 맞물려 있으며,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폐지는 이례적이며, 실적 저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로 몰린 직원들이 앞으로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 시도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례를 통해 현실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합단지 분양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할 때

안 신 일 의원 (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 | 6월 9일 교통국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안신일 의원은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해당 부지를 활용해 공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중대한 역할까지 수행한 것은, 복합단지 조성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처럼 복합단지가 본래의 목적을 넘어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까지 해낸 만큼, 앞으로는 분양 물량을 빠르게 소화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양질의 공공기관과 핵심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의 질적 향상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학교 주변 흡연 문제 해결, 현장중심 대응해야

여 미 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 6월 11일 보건소

여미전 의원은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캠페인까지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법적 기준에 따른 대응만으로는 아이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른의 잣대가 아니라 아이들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올바름을 거울삼아 어른들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과 단속 강화, 안내 체계 정비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교육행정의 성찰과 성장 방안 마련 요구

유 인 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 6월 9일 세종시교육청 교육국

유인호 위원은 난치병 학생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 독도 체험 교육, 유보통합 사업 등을 두루 점검하고 기초적인 계획안과 실제 추진 과정 등을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또한 청소년 도박 관련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청, 유관기관이 협조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방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수업의 질을 보장하는 교원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윤 지 성 의원 (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 | 6월 5일 세종시교육청 세종교육원

윤지성 의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연수 내용과 강의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 관련 다양한 연수, 워크숍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 모든 부서가 교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관 독립성과 투명성 저해하는 조례 개정 우려 표명

이 순 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 6월 5일 세종시 자치행정국

이순열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과 정책연구원 통합 과정에서 "기부금 등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목적 외 사용하도록 허용한 조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엄격히 제한한 상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상 운영 규정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절차와 내용 모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청소년 마음 도닥이는 병원 연계 방안 마련과 예산 사용 건전성 강조

이 현 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 6월 4일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이현정 의원은 청소년 정신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외부 자원의 적극적 활용과 더불어 마음 건강 위협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병원 연계 방안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낮병원 등 타시도 교육활용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아픈 청소년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시급히 제공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교육청 제반 사업 추진 과정의 예산 사용 계획과 내역 등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더욱 건전한 예산 사용에 항상 주력하도록 요청했다.

그늘막, 시민 편의 증진 위한 개선 절실

최 원 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 6월 10일 시설관리공단

최원석 의원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양한 인재가 시정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해야

홍나영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 6월 4일 세종시 기획조정실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 위원회 위원 중복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 사람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기준을 보면 4개 위원회 중복이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중복 가능성이 40%가 증가한 셈”이라며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 혁신을 제언했다. 또한 “동일 인물이 반복 위촉되는 구조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민 추천제나 위원 공개모집을 적극 도입해 다양한 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1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월 19일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희귀·난치질환 치료 및 연구 강화를 위해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국내 유전자·세포 치료 연구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귀·난치 질환은 치료제 개발이 필수적이나, 국내 연구 환경과 규제 문제로 인해 신약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상연구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와 진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주요 골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상병헌 의원은 “국내 연구진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유전자·세포 치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연구와 임상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생률과 0~9세 아동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희귀·난치 질환 환아 치료를 위한 최적의 입지를 가졌다”라며 “세종시에 유전자·세포치료 센터를 건립하면 연구와 진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연구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결의안 2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이현정 의원 대표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3일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민간 교육단체의 공교육 개입 논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강사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정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온 민간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늘봄학교는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의 확장 모델로,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사가 교실에 들어온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아이들의 교실이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사안을 축소·봉합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우려를 직시하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리박스쿨 등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전면 조사, 부적격 강사 즉각 퇴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 통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 3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채택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월 23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동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세종시 내 대통령 집무 확대 및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 ▲행정 효율성과 정책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 실행계획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세종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가 오히려 타지역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현실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함께 담겼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여야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세종시민의 뜻을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조속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97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1차 본회의 | 2025. 3. 5.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503	의장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504	의장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4506	김현옥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4	4505	의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5	4381	시장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행복위	부결	원안가결
6	438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부결	원안가결

제2차, 제3차 본회의 처리 안건 없음

4차 본회의 | 2025. 3. 19.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509	의회운영 위원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472	시장	한자어 · 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47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447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	4475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	4478	김현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479	이순열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	4480	김현옥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9	4481	김현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4482	김현미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1	4508	상병헌 의원 외 6명	국가 유전자 · 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2	4476	시장	번암리 도시재생사업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4483	김현옥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4	4485	김영현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5	4486	박란희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16	4487	김현옥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7	4488	김광운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8	4489	김현옥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9	4490	김현옥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	4491	김현옥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4492	김광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2	4493	안신일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3	4494	김현옥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4372	최원석 의원 외 6명	39만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	산건위	수정가결	부결
25	4477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6	4495	여미전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7	4496	윤지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8	4497	윤지성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9	4498	윤지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0	4499	이현정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4500	윤지성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4501	김영현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33	4502	이현정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4507	의장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제98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1차 본회의 | 2025. 5. 20.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596	의장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2	4597	의장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	-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	-	-
4	-	교육감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	-	-
5	-	시장/교육감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	-
6	4598	의장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7	-	의장	휴회의 건(2025.5.21.~6.22./33일간)	본회의	-	원안가결

2차 본회의 | 2025. 6. 23.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1	4600	이순열 의원 외 7명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	-
2	4602	의회운영 위원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	4541	김충식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	4542	임채성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	4543	김영현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6	4544	임채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	4545	이현정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	4603	행정복지 위원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9	4510	시장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0	4513	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1	451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2	451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3	4519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4	4520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5	4521	시장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6	4522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7	4523	시장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8	4524	시장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19	4525	시장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0	4548	김현미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1	4550	김학서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2	4551	상병헌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3	4552	김재형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4	4553	여미전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5	4554	박란희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6	4555	홍나영 의원 외 16명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27	4556	여미전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8	4557	이순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29	4558	김광운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0	4559	이순열 의원 외 8명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1	4560	이순열 의원 외 3명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2	4561	김현미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3	4562	이순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4	4563	김충식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35	4608	행정복지 위원장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36	4604	산업건설 위원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7	4526	시장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8	4527	시장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39	4528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0	4529	시장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1	4530	시장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2	4531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3	4532	시장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4	4564	김효숙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5	4565	상병헌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6	4566	김재형 의원 외 15명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7	4567	김현옥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48	4568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49	4569	김학서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0	4571	김현옥 의원 외 6명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1	4574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2	4575	김광운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3	4576	김광운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4	4577	안신일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5	4578	김광운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6	4579	이현정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7	4580	김재형 의원 외 15명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58	4581	김광운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59	4582	최원석 의원 외 12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0	4583	안신일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1	4584	이순열 의원 외 5명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2	4585	김현옥 의원 외 11명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3	4586	김광운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4	4587	상병헌 의원 외 10명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5	4484	김학서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66	4605	교육안전 위원장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7	4533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68	4534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항	의안 번호	발의 (제출)자	안 건 명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 심사결과
69	4535	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0	4588	이현정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1	4589	김현옥 의원 외 7명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2	4590	유인호 의원 외 14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3	4592	윤지성 의원 외 8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4	4593	김현옥 의원 외 9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5	4594	윤지성 의원 외 13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6	4601	이현정 의원 외 5명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교안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7	4516	시장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8	4518	시장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79	4517	시장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0	4511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81	4512	시장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투자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예결특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82	4536	교육감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3	4537	교육감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4	4538	교육감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5	4539	교육감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수정가결	수정가결
86	4540	교육감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특위	원안가결	원안가결
87	4609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장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본회의	-	원안가결
88	4602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89	4603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90	4610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본회의	-	원안가결

INTERVIEW 01

배려심, 마음의 문을 열어 긴밀한 소통을 여는 길

이 순 열 의원

인터뷰를 찾은 방문 앞에서 반가운 인사가 오갔다.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를 끝내고 다시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이순열 의원을 마지막 인터뷰 이후 약 10개월 만에 만난 날이다. 이 의원은 마치 어제도 만난 이웃처럼 안부를 물었다. 그와의 인터뷰가 언제나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만남으로 시작해 인간 대 인간의 대화로 끝나는 이유다. 이 의원이 고민하고 논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범사회적이다. 가장 사적인 일로부터 가장 공적인 일을 도모하는 이순열 의원의 '소통론'을 청해보자.

Q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신 이후 일상으로 돌아오셨다. 아쉬운 점도 있고 후련한 점도 있을 텐데, 의장을 역임하며 느꼈던 점이 의정활동 방향성에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의장을 하기 전에는 정말 '프로 불참러'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외부 행사 참석률이 저조했다. 의장이 되고 나서는 시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해야만 하는, 그리고 참석하고 싶은 행사들이 많았다.

행사에 많이 참석하다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다. 바로 행사 관계자분들의 수고로움이었다. 인사말이나 축사를 통해 상투적으로 "노고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상적으로 와닿았다. '정말 고생하셨겠구나.' 그래서 의장의 임기를 마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그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혹시 불참하게 되면 행사 주관 단체나 과에 전화하거나 문자를 드린다. 감사함과 수고로움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 작은 변화랄까.

또 한 가지는 현안을 더 큰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행사 참석은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었다. 문자로는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현장'을 본 나날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치란 결국 작은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큰 모양새를 관찰해야만 가능한 것 아닐까? 소관 부서에만 국한하여 보지 않고, 시각을 넓혀 시 정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렇기에 의장으로서 보낸 시간은 의원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사고의 확장까지 할 수 있었던, 저에게는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Q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가 있다면?

평생교육 분야다. 많은 분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본인이 학습하고자 하는 것들을 배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글을 쓰거나, 카메라를 다루거나, 공예를 한다거나, 분야도 다양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중요성을 체감했달까. 나이를 막론하고 배움을 채워나가는 곳이었다.

아시다시피 세종은 평생교육 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자기개발의 선도를 이끄는 지역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정책연구원으로 통폐합되는 것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학습의 장이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하부 연구원 내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

문성을 유지하는 길인데, 통폐합은 효율을 위해 복지의 질을 낮추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은 사안이다.

Q 재선의원이시다. 초선일 때 후반기를 지날 때와 지금, 그 소회나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가장 큰 차이는 일의 절차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선 때는 천변에 있는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면 주무 부서 찾는 것부터 힘들었다. 어떤 부서에 전화하면 경기장 내 화장실만 담당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부서에 전화하면 장애인 화장실만 담당한다고 하더라. 담당 부서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다(웃음).

물론 지금은 소관 부서도 다양화, 세밀화했지만, 민원이나 지역 현안 같은 문제를 특정 부서가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함께 고민하는 의논의 장으로 거듭났을 때 더 생산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두 번의 임기 동안 점차 배웠다. 요구만 하던 공회전을 벗어나서,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대화'였다.

Q 의정활동의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환경보호, 생태교통, 청소년, 청년 복지 등과 맞닿아 있다. 처음 문제의식을 느꼈던 지점은 언제였는지?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처음 세종에 이주해 온 연도가 2014년이었다. 아파트 이외에는 생활기반이 정말 전무했던 시절이었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졌던 경기도 신도시에서 정말 미지의 세계로 뚝 떨어진 기분이었다. 체감하는 복지의 격차가 상당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불편했던 것이 바로 이동을 자유로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집 앞에 다니는 바퀴 달린 물체가 레미콘뿐이었다. 버스 노선이 아예 없었다.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은 꼼짝없이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때였다.

그래서 세종의 자가(승용차) 보유율이 전국 1위다. 지금도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하다. 주차장이 없다거나, 차선이 좁다거나…. 저 역시도 똑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공유자전거였다. 주차할 곳도 없고, 버스 노선도 효율적이지 않다면 자전거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의 이달고 시장이 강력하게 펼친 SUV 주차요금을 올리고, 시내에 자동차 유입을 막는 등의 정책에 매료되면서 생태교통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다.

청소년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둘 있는데, 당시 각각 초등학교 4, 5학년이었던

자녀가 친구들과 놀러 갈 곳이 없었다. 심지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집에 가라며 쫓아내기도 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청소년 인구가 많은 세종시에 청소년들이 어울리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세종은 학교가 과밀이다 못해 더 지어야 할 만큼 청소년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와글거리던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 빠져나간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청소년과 청년을 시계열성으로 놓고 유출을 막기 위한 계획이 수립될 때다. 주거가 안정되고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은 머물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지탱할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직 과거의 의전과 고압적인 문화가 잔재했다.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다. 그래서 일부러 외부 행사를 나갔을 때나 집행부를 방문할 때도 관계자분들을 더 깍듯하게 대하고자 애를 많이 썼다. 시청 직원과 의회 의원으로서의 만남 이전에 시민 대 시민의 만남이다. 배려심은 결국 마음의 문을 열어 긴밀한 소통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시민 대 시민으로 만났을 때도 좋은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단층제라 민원 하나가 해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시민분들은 좀 갑갑할 수도 있으실 것이다. 시 의원들이 매 순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세종살이를 하도록 애를 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다짐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는 시장이나 의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한다.

INTERVIEW 02

언이유신言而有信의 정신 새기며 의정활동 임할 것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언행은 쉽지만, 말에 믿음을 싣는 일은 쉽지 않다. 언어에 신의가 생기려면 발언한 자의 실천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추구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가치를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꼽았다.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의원, 말 한 바 책임질 수 있는 의원,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의원을 목표로 둔 홍나영 의원의 의정 철학을 펼쳐본다.

홍 나 영 의원

Q 지방의원이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다면?

어릴 적부터 마을의 고충을 해결하고 어르신을 섬기며 불우이웃을 살피는 지방의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마을의 편리를 증진하고 발전을 이루는 것에 이바지하는 열정적인 리더는 어린 눈에 정말 정의롭고, 빛나 보였다.

지재유경志在有逕,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미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고 그 방법 또한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지난 25년간 최선을 다해 교육자의 삶을 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일었다. 시의원이라는 꿈에 의미를 둔 마음이 점점 실천을 향한 의지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꿈에 그리던 시의원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오직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며,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정신으로 민생을 위해 힘쓰고자 한다. 그동안의 제 경험과 역량을 살려, 간절함과 열정을 담아 활동에 임하겠다. 어릴 적 꿈을 잊지 않고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된다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고 싶다.

Q 세종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싶은지?

세종시 내에서 교육, 보건, 환경, 교통, 안전 등 시민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공적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세 감소 등 재정적 여건은 악화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삭감이 될 때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에 관한 예산은 배제되거나, 누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삶이 있다. 치안, 교통안전 등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세종, 사회적 약자들이 사람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세종을 만들고 싶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교육 분야 관련 예산 또한 배제되면 안 된다. 아이들은 앞으로 세종을 이끌어갈 미래다. 좋은 배움과 좋은 놂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반드시 배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시는 교육복지 관계자 분들께 지속적이고 아낌없는 노력으로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전한다.

Q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다. 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가치를 뒀던 부분이 있다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상시 운영되는 위원회다.

세종시의회의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및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는 특별위원회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책임자로서,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 가치였다.

이러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 내부에서 청렴한 윤리상이 무엇인지를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세종시의회에 갖는 기대와 우려를 항상 생각하며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고충과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아 세종시의회의 청렴한 윤리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힘썼다. 또한 자정능력까지 강화하고 위원회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과 소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Q 공공복지(사회서비스원), 지역경제활성화(고향사랑기부제) 등에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지역환경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즉, 지역의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어린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애 주기별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여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모두를 위한, 모두가 행복한 사회서비스로 복지 도시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공복지에 관심이 생겼고, 앞으로도 지속하여 그 관심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세종시 재정 부족과 인구 정체 위기에 대응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이다. 그 활성화의 일환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발전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운영상 문제가 드러나는 현상이 발견돼 제9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어야 본질적 역할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은?

공동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사건은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 구

성원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참혹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안전하게 구성, 운영되는 것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깊어졌다.

사건 이후 세종시 초등학교들을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지 않던 문제들이 있었다. 제9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도 초등 돌봄 사각지대 방지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런 활동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세종시 풋살장의 초등학교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요즘은 세종시 어린이, 청소년 생명 안전과 보호를 위해 체육시설, 공공형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일부 개정 및 재정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 공동체에서 안전망이 확보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에 신뢰가 있고 행동이 따르는 '언이유신言而有信'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조기 대선이 진행됐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시민의 뜻을 모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고,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더불어 세종시의회에도 귀감이 되는 든든한 세종시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안신일 위원

이현정 위원

홍나영 위원

제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3일 제9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총 3건을 심사해 1건은 보류,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검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성 있는 개선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의회사무처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의 운영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결산을 되짚으며, ▲의원 및 공무원 교육 다각화 및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 ▲의정모니터단 운영의 목표 및 과제 조정을

통한 예산 불용액 최소화 ▲전문위원실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여비 집행잔액 등 항목별 세부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비회기 기간 중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및 선진 사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원과 공무원의 동반 출장 시 여비 기준 차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감사 끝에 김영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총 8건 안건 심사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7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검토 등 총 17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날 세입예산은 472만 5천원이 증가한 513만 9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예산은 1,609만원을 감액한 121억 5,244만원으로 원안가결됐다.

또한 의회운영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 위원

상병헌 위원

여미전 위원

이순열 위원

홍나영 위원

제98회 정례회 대비 3개 기관 운영 현황 점검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30일,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사회서비스원, 반다비빙상장 등 세 기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 일정으로 원래 일정보다 앞당겨 추진된 이번 현장방문은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및 주요 민원 발생 사항 등에 관해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관별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확인한 사항들을 토대로, 시민을 대신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98회 정례회 대비 여성플라자 운영 현황 점검

김 현 미 위원장

세종시 독립 연구기관 출범 관련 간담회 개최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30일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독립 연구기관의 내실 있는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9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독립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해, 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현재 연구원 설립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 연구원 출범 준비와 관련된 현안 보고를 청취한 후, 교육과 연구 기능의 통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연구기관 설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독립 연구기관 출범 관련 간담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마무리 …

행정복지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이틀간 진행된 행정복지위원회 제1,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예비비 등 사용 현황, 성과지표, 지출 집행 잔액에 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2억원이 감소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 예산 집행률은 9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소관 14개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95억원 감소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2025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 심사 및 주요 안건 처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되었다.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으며,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학서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주요 소속 및 산하기관 운영현황 등 확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위원회 소관 주요 소속 및 산하기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상하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창업키움센터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일정을 소화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직접 보고 들으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그 애로사항을 묵과할 수 없는 세종시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한 자리였다. 공무원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 현장방문

김 재 형 위원장

2025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4일 경제산업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6월 4일~10일, 7일간)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감사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해 투자유치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경제 분야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청년정책, 북부권 출장소 설치, 보증 손실 관련 시스템, 세종테크노 파크 홍보, 청년 친화형 복합 콘텐츠, 양산업 육성, '낀 세대' 지원방안 등 각 기관의 정책 추진 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최, 조례안 등 32건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2일 제98회 정례회 산건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신중년 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도모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면제 기준을 조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9억 3,961만 1천원 증액 편성,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8억 4,68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여 제출됐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했고, 세출예산은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증액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으며,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세종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4일부터 9일 사이 3일간 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종시교육청 소속 3관(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3국(교육국, 행정국, 정책국), 5기관(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의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과 교육행정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질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교육행정이 수요자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 공정한 사업 추진,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들은 교육청의 신규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윤 지 성 위원장

시민안전실·소방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0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

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일상에서 돌발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지속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시가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의 마련과 실현에 꾸준히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98회 정례회 제3차 회의 열어 총 11건 안건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자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하며 교육 현안 전반 관련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총 3일간(13일(금)~14일(토) 오전, 16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76억원(3.2%) 증액된 1조 2,210억원이고,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8억원(1.74%) 증액된 1,643억원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관 기관들의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

또한 긴급 현안 관련 안건을 추가하여, 이현정 부위원장이 발의한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5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5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8%(△1,637억원) 감소한 2조 2,46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원,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7,17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4억원) 감소한 규모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6.0%(667억원) 증가한 1조 1,766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51억원이다. 기금 결산은 2024회계연도 말 조성액 기준 3,23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3%(▲1,616억원) 감소했다.

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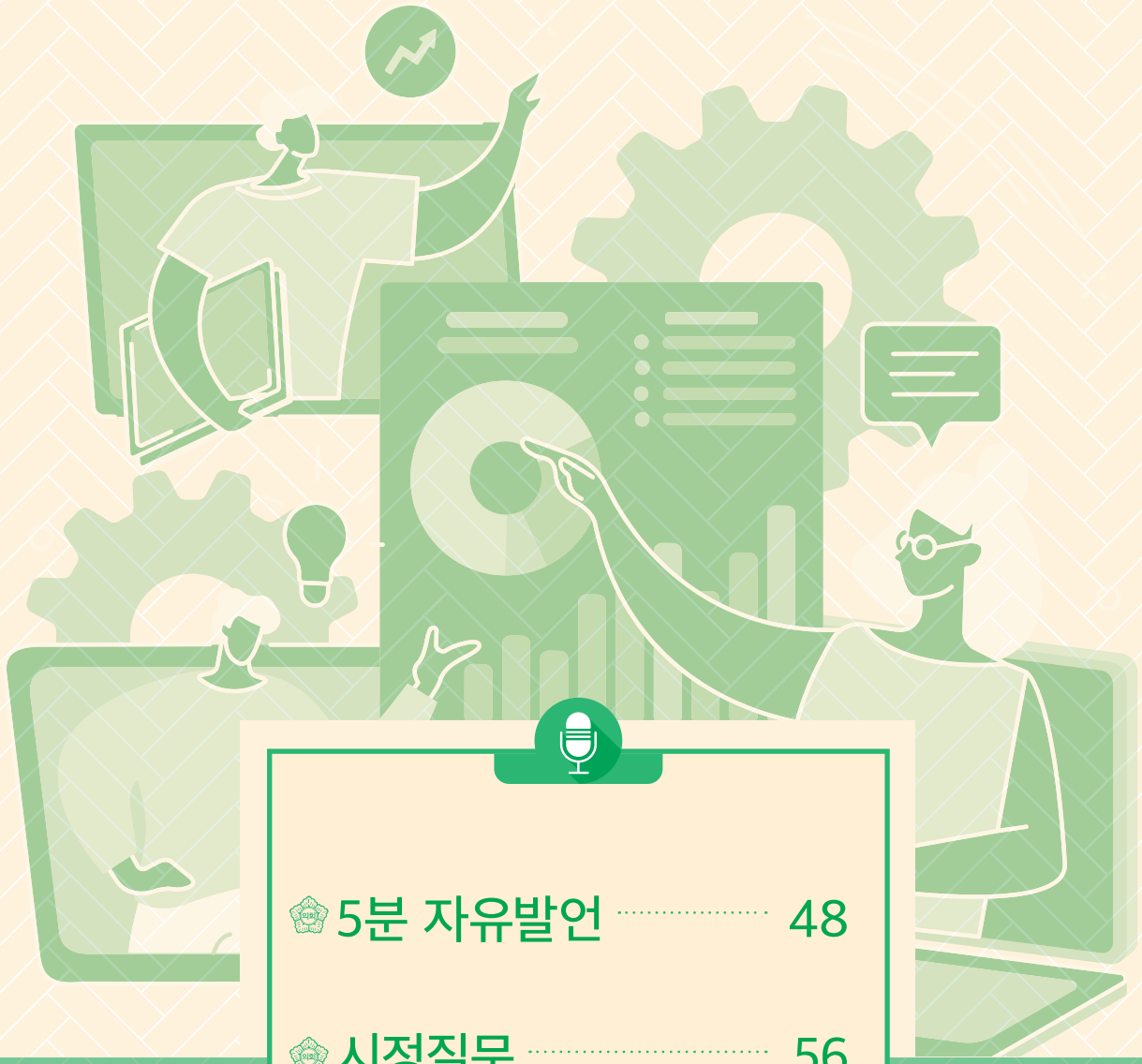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36%(1,260억원) 증가한 2조 1,076억원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6개 사업에서 4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세종시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2,969억 6천만원 규모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에서 580억 4,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안이 제출되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지출계획 중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조형물 설치' 사업에서 7천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다.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2%(376억원) 증가한 1조 2,210억원으로, '학교 민원상담실 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서 2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선도교원 양성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 4,8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계획 대비 1억 1백만원이 증가한 3,299억원 규모로 원안가결되었다.

시·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5분 자유발언 ····· 48

시정질문 ····· 56

긴급현안질문 ····· 57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2보건소 건립 재촉구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제2보건소 설치를 촉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세종시의 대응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제2보건소 건립은 단순한 보건 시설 확충이 아니라, 세종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 보건소의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보다 1.86배 많고, 도농복합지역 평균보다 인구는 80%, 관할 면적은 65% 더 넓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민들에게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 인구가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임계연도가 2025년, 즉 바로 올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소 추가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이날 여미전 의원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해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줄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으며 시장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관내 4개 전통시장(조치원, 금남, 전의, 부강)의 점포 수는 2015년 538개에서 2024년 488개로 감소했고, 상인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1명에서 33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 의원은 전통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 소비자 혜택 강화,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여미전 의원은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때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전통시장이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세종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신중한 접근 필요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은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84%가 정비되었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라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약 추진율 88%, 그러나 시민 체감도는?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구호에 그치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님의 시정 4기 공약과 정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내실 없는 정책에 머물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여민전 발행 축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차질 ▲정원도시에서 한글문화도시로, 다시 행정수도로 도시 정체성 혼선 ▲조치원역 KTX 정차 공약 폐기 등을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종시의 의료 공백 문제도 강하게 비판하며 해결책으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의 의료 브랜드로 육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의료진 처우 개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행정이 '내허외식(內虛外飾)', 즉 겉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3만 도시보다 못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 조속히 확대돼야

이현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은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세종시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타 시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2015년에 채택한 파리협정의 의미를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요를 고려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3년 전 유사한 발언 이후에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는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을 고려한 추가적인 전기차 구매 지원방안 마련 ▲행정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계획 이행을 제시했다.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세종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시민의 뜻 반영해야

상병헌 의원
아름동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은 시민의 뜻을 반영한 중앙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녹지 공간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특히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과 세종 지방법원 건립이 확정되며 정치·행정수도의 위상을 갖기 위한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상 의원은 특히 26만 평 중 5만 5천 평은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논농사가 유지되며 실질적인 공원 조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의 내셔널 몰 공원을 예로 들며 식물원 및 호수공원과 연계한 자연생태공원이나, 어린이 박물관 및 한글문화단지와 연계한 테마파크 조성, 사계절 워터파크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공공시설 복합단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교두보 돼야

안신일 의원
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복합단지에 공공기관 입주와 건축물 준공이 본격화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시대가 본격화할 경우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교육시설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공공기관 유치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최적 활용 전략 마련을 시와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가 열리면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가치 상승에도 대비해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금남면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동시 해제 주장

김동빈 의원
부강·금남면, 대평동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은 금남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고 있는 이중 규제의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장기적 도시확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52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고, 1990년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더해져 사실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넘어 ‘금지’ 수준의 이중 규제를 겪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했다.

또한 “세종시 조성 초기에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필요했지만, 최근 지가 상승률과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며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한 장기적 도시 확장 전략 수립을 세종시에 공식 요청하며, 세종시 남부 관문으로서 전략적 가치를 갖춘 금남면이 세종시 미래성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 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김영현 의원
반곡동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은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초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과의 약속… 해수부 이전은 특별법 취지 위배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김충식 의원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에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불참하고, 국회 대관마저 협조받지 못해 타 지역 의원의 도움으로 행사가 개최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지역 정치권의 책임 회피이자, 정당 이해관계를 시민의 민의보다 우선시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며, 지금은 보여주기식 협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부족한 자격시험장, 수험생 불편 해소 위해 개선 시급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세종시는 22개 시험장에서 약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친 반면,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2만 2,781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16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어, 인프라 격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으로 ▲시험 수요 및 수험생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 실시 후 중장기 시험환경 개선 계획 수립 ▲학교시설 시험장 활용시 인력·청소·방역·보안 등 지원 방안 마련 ▲세종시가 자격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 촉구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이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결과를 제출받고 취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적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담당 공무원이 혼란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개선한 경기도를 사례로 들어 공유재산 활용에 있어 적극행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는 시민 전체의 재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행정 영역"이라며 "빈틈없는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적극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피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인내에 기댄 미봉책 안 돼, 근본적 개선 시급

김현옥 의원은 크린넷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대응의 한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개선과 협력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크린넷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악취 및 고장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종시, 행복청, LH는 시민 불편을 뒤로한 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산울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크린넷 관로 막힘 민원을 예로 들며 "표면적으로는 쓰레기 오투입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시공과 감리, 운영 등 각 단계에서 책임 주체가 모호하고, 이를 총괄할 체계가 부재한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공동 대응할지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세종시·행복청·LH·감리사·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제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세종시에 제3롯데월드를!

윤지성 의원
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

윤지성 의원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제3롯데월드 유치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정작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만한 놀이·문화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며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잠실과 부산 오시리아에 이어, 제3롯데월드가 세종에 들어선다면 중부권 대표 테마파크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일부 지자체는 제3롯데월드 유치에 나섰다. 세종시도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체적인 후보지 검토, 광역 교통 여건 분석,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유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목소리 모아야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의 철회와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본격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세종시의 정체성과 통합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는 타 부처 추가 이전의 빌미가 되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근본부터 흔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운영규칙 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행복도시법」 개정과 정부 예산 반영으로 추진 근거가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며 실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논의와 합의를 넘어 본격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정파를 초월해 한목소리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세종시 예산지원 시급하다!

홍나영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1명당 평균 매월 12만원에서 1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자녀 1인당 연간 2백만원 내외의 지출이 될 만큼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홍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세종시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홍나영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늦었지만, 조속히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시정질문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아파트 도시 세종,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책 수립 시급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차량 안전사고 대책 집중 점검 필요성을 피력하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며 승강기 안전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홍보 및 시 조명특화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끝으로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시정질문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안신일 의원
장군면, 한솔동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을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세종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세종시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으로 출발했던 행정수도 세종시가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했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0년 교육과학도시로 원안 변경 시도 등으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라며 "그 결과 공공기관 이전 지연, 인구 유입 지체, 부동산 침체 등으로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과 음식점 폐업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되는 등 세종시민들이 유탄을 맞고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날 답변자로 나선 이어 최민호 시장에게 일부 시민단체가 아닌 세종시, 충청권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감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세종시 유입 학생을 고려하여 세종시 출범 후 그동안 교육성과와 교육자원을 대외에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9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

상권활성화를 위한 경영회복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필요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세종시 집행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길에 관해 고민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의 자영업자들은 월 50~70만원 수준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업이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도 폐업률이 16.6% 늘어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와 충남도의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세종시 역시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23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직접 조사한 보람동, 소담동, 대평동 지역의 공실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세종시가 상가 공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영 회복 지원금이나 추가적인 이차보전 사업이 소상공인들을 버티도록 만드는 희망의 시그널이 되어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길 바란다"라며 집행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긴급현안질문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제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어진동 데이터센터' 용도변경 의혹 제기,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철저한 재검토 요구

이순열 의원은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2차에 조성 예정인 40MW급 데이터센터 사업의 추진 과정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용도변경 과정에서 허위 신청 의혹이 있음에도 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상 데이터센터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촬영소 용도변경 추진 후 별도의 평가 없이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과의 협의 절차 없이 추진되는 고전력 시설 조성 방식에 대해 "사후 협의, 사후 보완이라는 접근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중심에 들어설 데이터센터가 과연 기회인지 재앙인지 지금 판단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용도변경 재검토 ▲전력공급 적법성 점검 ▲안심구역 구상 검증 ▲주민 건강권 보호 대책 수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 집행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공부하는 의회

20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연구모임을 소개합니다!

하나,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둘, 등록서와 활동계획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셋, 세종시 현안을 파악, 분석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전문성으로 **세종을 업그레이드할 '열정러'들**을 소개합니다!
2025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다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미리 대비해 튼튼하게 사회적 기반을 준비합시다.
앞으로 주인공이 될 지역 인재 공공부문 진입의 문을 활짝 열어야죠!
실속있게 채용 정책도 뚝딱뚝딱~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대표의원

안 신 일 의원

연구모임 회원

김재형(의원), 박란희(의원),
이홍준(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봄이(한국직업능력연구원선임연구원),
정은희(한국산업인력공단세종지사장),
서경희(세종시민대표), 현영임(세종시교육청)

자꾸 비어가는 상가들, 이대로 그냥 둘 건가요?
이제는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할 때!
북적거리는 상가와 활발해질 지역경제를 위한 대책, 지금 시작합니다~

상가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 효 숙 의원

연구모임 회원

김동빈(의원), 이순열(의원),
이희택(중도일보사),
임창웅(세종시문화관광재단),
주영구(세종벤처기업협회),
박상일(소상공인과), 안신희(문화예술과),
이규화(경제정책과)

먼 나라에서 온 이웃도 '우리 동네 주민'.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함이 공존하는 문화,
다채로운 지역사회로 거듭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봐요!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홍 나 영 의원

연구모임 회원

김현옥(의원), 김동빈(의원), 김학서(의원),
이미경(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
전세경(공주교육대 다문화교육학 교수),
강영숙(군산대 사회복지학 교수),
하미용(세종시가족센터장),
김연길(다문화엄마학교장)

공부와 인간관계, 고민 많을 세종 청소년은 '마음 돌봄'이 필요합니다.
즐김과 배움의 공간까지~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청소년 맞춤형 플랜, 모색 해볼까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 순 열 의원

연구모임 회원

김영현(의원), 이현정(의원),
유금봉(All about Youth 대표),
조은희(세종시 아동청소년과 팀장),
김수현(세종시교육청 장학사),
김기헌(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이상미(세종교육연대 공동대표),
김성훈(조치원청소년센터 청소년 지도사)

걷기 좋고, 타기 편한 도시로,
보행자가 행복한 세종시 만들기!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환경 구축의 방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봅시다.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대표의원

최 원 석 의원

연구모임 회원

김영현(의원), 김현미(의원),
상병헌(의원),
김성훈·박경욱(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용준(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재민(단국대학교 교수),
김용수(세종시 대중교통과장)

비 내리는 연서, 얼굴을 만나다.

갤러리985

꽤 많은 비가 땅에 뿌리 내린 계절을 씻어내는 날이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에서는 비로 한껏 향취가 살아난 풀의 향기가 달리는 차의 창문을 넘었다. 빛이 없어 사진 촬영이 걱정됐지만, 낭만은 넘치는 날씨였다. 한참을 달려 고즈넉한 장소에 당도했다.

아득한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카페였다. 빗소리가 주파수처럼 대지를 두드렸다. 입구로 가는 길에는 이끼 낀 배수로를 따라 구절초가 넘실거리며 비를 맞고 있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꽃구경을 하며 카페로 들어서니 사진에 대한 고민은 사라졌다. 작품 자체만으로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갤러리였다.

연서면 깊은 곳, 쌍류예술촌에 자리 잡은 갤러리985(세종 연서면 쌍류예술촌길 22)는 세종시 원주민인 예술가 부부(이태근 조각가, 최희진 화가)가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다. 남편은 조각을 만들고, 아내는 그림을 그린다. 갤러리 카페라는 성격에 걸맞게, 정원, 입구, 내부 어디 하나 빠질 것 없이 발길을 멈추는 작품으로 가득하다.

이들 부부의 작품세계는 서로 닮은 듯 다르다. 이태근 조각가의 조각은 대부분 얼굴, 특히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모두 다른 생김새, 다른 머릿결, 다른 표정을 하고 있지만 섬세한 온화함만은 모든 작품을 관통한다. 얼핏 보는 각도와 빛에 따라 표정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따뜻한 눈과 구순口脣의 배열은 결코 그 모든 행간을 형언할 수 없어도 동시에 예술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발화한다.

최희진 화가의 캔버스에는 자연의 품이 수 놓여있다. 자연이 주는 위로는 따뜻한 스펙트럼의 색채로 아지랑이처럼, 비처럼, 바람처럼 피어난다. 그가 화폭에 담아내고자 하는 요소는 긍정의 에너지다. 상징은 곧 개성 있는 마티에르와 장치로 관객을 만난다. 특히 최 작가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와 작은 새는 화폭을 통해 그림과 마주하는 자에게 닿는 '쉼과 자유', 그리고 '위로'다.

내부로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 대관 전시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 있다. 방문할 당시에는 김명옥 작가 초대전, <꿈의 숲> 전시가 한창이었다. 꿈에서 볼 법한 동산, 기억과 경험 속 시공간을 숲이라는 세계로 재구성했다. 아름다운 시절을 회상함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김명옥 작가는 관람객들 또한 그림이 펼쳐진 꿈의 숲에서 행복함을 공유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7월에는 세종미술협회 수채화 분과전 <채움과 비움 사이, 수채의 언어>와 이동숙 <VR전시 초대전>이 열린다. 순수부터 현대까지, 장르를 아우르는 전시가 달마다 분주하게 갤러리985를 수놓고 있다. 이곳을 찾는 방문자가 같은 공간에서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유다.

갤러리의 이름은 FM98.5, K본부 라디오 클래식 채널에서 따왔다. 클래식의 순수한 선율은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아름답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다. 그렇기에 예술이 척박한 땅이라고 평가받는 세종시에 그 명맥을 뿌리내리고 지켜나가려는 이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그늘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입사각이 높아지는 여름이다. 뜨거운 볕을 피해 마음의 그늘을 찾아 갤러리985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사진_김영주

세종에서 놀자, 쉬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 **세종에서 뭐 할까?**
잘 쉬고 잘 놀 수 있는 **세종시 여름 행사 소식!**
선풍기와 에어컨만으로는 열대야를
좀처럼 극복할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가족, 연인, 친구와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여름 계획표!

춤추고 노래하는 한글

예매 필요

무엇을? 한글의 소리와 리듬을 신체로 느껴보아요!
언제? 8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어디서? 한글상점
가격은? 무료

상세정보는?

경셩유행가 - 판을 나온 소리

예매 필요

무엇을? 국립국악원이 소장한 유성기 음반 속 유행가와 함께 1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언제? 8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2만원 / S석 1만원
시야제한석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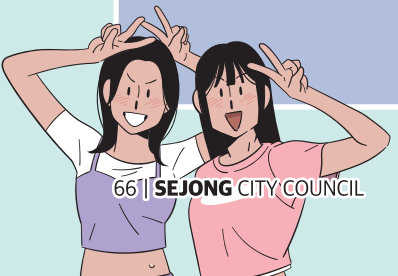
상세정보는?

내가 물에서 본 것

예매 필요

무엇을? 휴머니즘적 몸을 넘어 포스트휴먼적 몸이 펼치는 존재론적 안무를 만나볼 시간
언제?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4만원 / S석 3만원 /
시야제한석 1만 5천원

상세정보는?



콘서트, 조치원

예매 필요

무엇을? [이무진], [온도(ONDO)], [서로다른]
세 뮤지션이 수놓는 콘서트를 조치원에서!
언제? 8월 16일 토요일 오후 7시
어디서? 세종문화예술회관(조치원)
가격은? R석 6만원 / S석 4만원

상세정보는?

뮤지컬 알사탕

예매 필요

무엇을? 백희나의 그림책 <알사탕>을 뮤지컬로 선보이는 무대, 상상력과 유머, 그리고 감동까지 모두 느껴봐요!

언제? 8월 22일~2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어디서? 세종문화예술회관(조치원)

가격은? 1층 동동이석 6만원
2층 구슬이석 4만원

상세정보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X 세종솔로이스츠 키메라의 시대

예매 필요

무엇을? 세계적인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내레이터로 클래식 음악 무대에 서는 국내 최초의 공연!

언제? 8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7만원 / S석 5만원
시야제한석 2만 5천원

상세정보는?

세종 유스 실내악 페스티벌

무엇을? 세종에서 열리는 청소년 실내악 축제를 즐길 시간~

언제? 8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어디서? 비오케이아트센터 공연장

가격은? 무료

상세정보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YOUNG&CLASSIC

예매 필요

무엇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대의 정서를 품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를 전하는 클래식 프로그램!

언제? 9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어디서? 세종예술의전당

가격은? R석 4만원 / S석 3만원
시야제한석 1만 5천원

상세정보는?

입법정보

Ⅰ. 생활법령 69

Ⅱ. 주요입법동향 73

Ⅲ. 법령해석사례 77

Ⅳ. 최근시행법령 79

Ⅴ.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81

사례 01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나부모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한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배우자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점점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더니 최근 몇 년 동안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 심지어 20일의 감치[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함]명령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계속 양육비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나부모씨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신청하고, 나아가 전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연, 나부모씨의 전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전 배우자

양육비 지급은 부모의 도덕적 의무이자 단순한 금전 문제일 뿐인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한다고?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형사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거야.

② 나부모씨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결

정답은 2번.

나부모씨 : "양육비 지급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꼭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이야.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입니다.

위 사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 2021년에 신설됐고, 2024년 7월에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형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복지를 위한 부모의 법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형사처벌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의 하나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전 배우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 결 일 2025년 5월 1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02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시청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솔로몬의 재판)

OO구에 사는 남몰래 씨는 OO장례식장 직원에게 특정일에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에 있던 누군가가 '장례식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신고자가 누군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요청을 받은 장례식장 직원은 남몰래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고, 남몰래 씨는 이를 통해 특정인의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남몰래 씨가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보아 남몰래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① 남몰래 씨

억울합니다. CCTV 영상 자료를 파일로 전송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저는 단순히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을 열람했을 뿐입니다.

② 검사

남몰래 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곧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평결

정답은 2번.

검사 : "남몰래 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잖아요. 따라서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 곧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개인정보의 물리적인 이전 없이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가. 구「개인정보 보호법」제59조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제5호는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구「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남몰래 씨는 특정인의 도박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직원이 보여 준 CCTV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특정인의 초상, 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지득하여 그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는「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제9호 후단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 결 일 2025년 2월 16일

참조판례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법정보

Ⅱ 주요입법동향

(1) 최근 공포 법령

0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포 '25. 5. 27.
법률 제20961호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요금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추가함.

0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 '25. 5. 27.
법률 제20957호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를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 단계에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03 항공안전법

공포 '25. 5. 27.
법률 제20981호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고 자격증명의 한정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제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맞추어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주요법안)

0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여성가족위원장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0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임.
-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임 (안 제34조의6 신설).

(3) 최근 국회 접수 법안(주요법안)

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의원 등 13인

- 현행법은 사전투표소는 원칙적으로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금요일 및 토요일로 정해지게 되는데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선거인은 자유롭게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거주지 인근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됨.
- 그런데 이번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요일 및 금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무하는 선거인은 자신의 근무처가 소재한 읍·면·동의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원활히 할 수 없어 고충을 겪게 됨.
- 이에,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정하여 읍·면·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의원 등 11인

- 현행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임. 이들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입소 대상으로 하며,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는 경우 퇴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런데 이들 시설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당장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소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아동복지법」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25세에 이를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입소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도록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4) 최근입법예고(주요법령)

0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서영교 의원 등 10인
(의견제출 `25. 6. 28.까지)

-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는 1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 8세 이후 오히려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과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조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양육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어 이를 추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우재준 의원 등 11인
(의견제출 `25. 6. 28.까지)

-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입법정보

III 법령해석사례

사 례

질의(법제처-25-0331 / 회신일자 '25. 6. 12.)

①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관련)

질의요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유

-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문언상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이처럼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및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이처럼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에서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에 대해 별도의 통지 절차 및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전에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3자에게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향후 제3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 및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해석사례

입법정보

Ⅳ 최근시행법령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25. 6. 4. 시행

-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02 국세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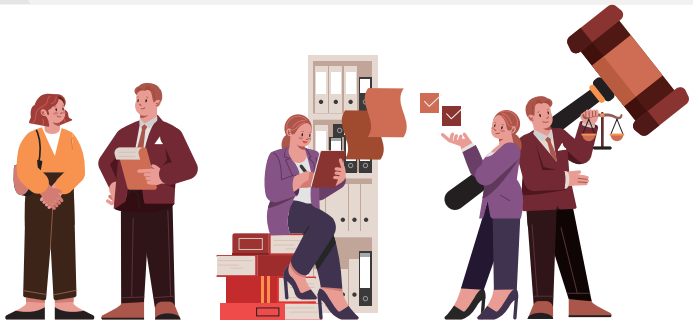
일부개정
`25. 6. 15. 시행

-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3 병역법

일부개정
`25. 6. 19. 시행

-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4 의료법

일부개정
`25. 6. 21. 시행

-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5. 6. 21. 시행

-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경찰관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06 간호법

제정
`25. 6. 21. 시행

-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입법정보

V 타 지자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25. 5. 23.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제7조)

다.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불이익 조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02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제정, 시행
`25. 6. 16.

제안이유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제4조)

나.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에 사항(제5조)

다.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세부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제6조~제7조)

세종시의회 2025년 하반기 회기 일정 안내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제헌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 **제 99 회 임시회 : 8.25.~9.8.(15일)**
  -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조례안 등
    ※ 을지훈련 : 8.18.~ 8.21.(예정)

9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개천절	4
5	6 추석	7	8 대체휴일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 100 회 임시회 : 10.13.~10.24.(12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 세종축제 : 10.9.~ 10.12.(예정)

11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 **제 101 회 정례회 : 11.11.~12.15.(35 일)**
  - 시정질문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5 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6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능 11.13.

12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 본회의 예정일 ■ 위원회 예정일

※ 기본 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월 말 경 인사청문회 접수 요청으로 기 예정된 회기 일정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는 간편하고 빠르게 세종시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jongcitycouncil/22321746360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ejongcouncil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민 필자 모집 안내

계간 〈세종의정〉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시민 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 포토에세이, 수필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합니다.

시의회 방청이나 방문,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실 분,

세종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해 주실 분,

가장 일상적인 시선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 주실 분 등

숨은 작가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이메일 제출 시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작성 바랍니다.
- 포토에세이 제출 시 사진 원본(5MB 이상 고화질, 스마트폰 촬영 지양) 파일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 선정된 분들께는 별도로 회신해 드립니다.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포토에세이, 시 5매 내외) 입니다.
- 적합한 원고가 없을 시 미선정되어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 편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 화 044.300.7248

팩 스 044.300.7219

이 메 일 yjk78901@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01 | 홈페이지(https://council.sejong.go.kr/) 접속

02 | 홍보관

03 | 의회간행물

04 | 의회소식지 구독 신청

인터넷방송 보러가기
councilty.sejong.go.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